

1. 「문화재보호법」상 기념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절터, 조개무덤, 가마터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②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③ 의식주,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④ 동물, 식물, 지형, 광물,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는 기관은?

- ①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② 「민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③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단
-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저습지 유적에서 출토되는 수침고목재는 목재의 주요 구성 물질인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가 유실되고 그 공간에 수분이 가득 채워져 출토된 후 수축과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수침고목재의 수축변형을 방지하고 재질을 강화하기 위한 보존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PEG함침법
- ② B.T.A법
- ③ 고급알코올처리법
- ④ 진공동결건조법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승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수자
- ② 명예보유자
- ③ 보유단체
- ④ 전승교육사

5.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④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문화재 재질별 예방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길이가 긴 문서나 크기가 큰 지도의 경우 펴서 보관하는 것보다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보존에 더 좋다.
- ② 해충과 곰팡이로부터 섬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제를 사용할 경우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③ 채색이 없는 가구류 등은 가구용 왁스나 기름 걸레를 이용하여 닦아주는 것이 좋다.
- ④ 도자기 취급 시 가급적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

8. <보기>에서 설명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종류는?

—<보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전체 유적조사보다는 특정부분을 먼저 조사하여 대상의 전모를 파악하고, 본 발굴의 범위를 정하는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②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 ③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 ④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9.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 ②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
- ③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 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 ④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떨어 지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상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은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50미터까지 이다.
- ② 성터는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 ③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 ④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11. 문화재 기질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부착하여 서식 하는데 이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질과 생물 간의 친화도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이와 같이 생물이 문화재 기질에 부착하여 콜로니를 발생시킬 때까지 영향을 주는 기질의 모든 특성을 생물수용성 (Bioreceptivity)이라고 한다. 문화재의 기질이 갖는 생물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다공성
- ② 물을 흡수하는 모세관
- ③ 표면의 거친 정도
- ④ 혐기성

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 ③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④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13. 한지 제조를 위한 초지작업에 앞서 닥섬유를 제조하는 공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닥무지(닥 찌기) → 닥 껍질 벗기기 → 닥 삶기 → 씻고 바래기 → 티 고르기 → 고해
- ② 닥 껍질 벗기기 → 닥무지(닥 찌기) → 티 고르기 → 씻고 바래기 → 닥 삶기 → 고해
- ③ 닥 삶기 → 닥 껍질 벗기기 → 닥무지(닥 찌기) → 고해 → 티 고르기 → 씻고 바래기
- ④ 닥 껍질 벗기기 → 닥무지(닥 찌기) → 씻고 바래기 → 티 고르기 → 닥 삶기 → 고해

14.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 관리 및 지원 하여야 한다.
- ④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종이기록물 탈산처리 방법은?

—<보기>—

산화마그네슘을 미세분말로 만들어 용매에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종이 내부에 침투한 산화마그네슘은 산성 물질과 중화반응을 일으켜 산성화된 종이를 중화시키며, 종이에 잔류하는 산화마그네슘은 대기 중의 산화물질과 중화반응을 통하여 산성화를 예방한다.

- ① Bookkeeper법
- ② BPA(Book Preservation Associates)법
- ③ DEZ(Diethyl Zinc)법
- ④ 리프케스팅법

1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매장문화재의 지역성, 교육성
- ②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 ③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 ④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17. 문화재보호법령상 현상 변경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문화재보호법령상 건축물인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파손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외관면적의 (가)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나)
①	2분의 1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②	2분의 1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	4분의 1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④	4분의 1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18. 「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모두 일반동산문화재이다.
- ②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일반동산문화재가 기간을 정하여 반출되는 경우는 있어도 영구반출되는 경우는 없다.
- ④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②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③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④ 수급인이 기성금(既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